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 학위 청구 논문

한국 사회상의 시각화를 통한 비판적 인식의 표현 연구

2022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판화전공

신 혜 원

한국 사회상의 시각화를 통한 비판적 인식의 표현 연구

지도교수 윤 동 천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판화전공
신 혜 원

신혜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7 월

위 원 장 김 춘 수 (인)

부위원장 임 자 혁 (인)

위 원 오 인 환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구자가 관찰한 한국 사회상을 소재로 하여 연구자의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작업관을 돌아보고 향후 작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작업의 관점을 정리하고자 각각의 소재로 작품을 분류하고 개별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표현의 방법과 형식적 특징을 서술하는 것으로 작품의 표현 방식이 적절하였는지를 점검하였다.

예술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예술이라는 언어로 관습과 정치에 대해 발언하고 관객에게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이때 예술작품은 의미를 제시하는 작가와 수용하는 관객 사이의 소통 매체가 된다. 연구자는 예술작품 내에 본인이 인식한 현실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현실 재고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면 미술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 비판적 작업을 통해 현 사회와 세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연구자 본인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준다.

연구자는 본인이 겪은 특정 경험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양상에 반응하고 이를 작업의 소재로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소재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개별 작품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해당 소재는 연구자의 주변에서 시작하여 정치와 사회 전반, 대중으로 확대되며, 외부를 향한 비판적 관점은 결과적으로 연구자 본인의 반성으로 귀결된다.

연구자는 소재를 ‘관습적 사고와 수용’, ‘관행적 정치행태’, ‘양식화된 대중의 정치참여’라는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로 ‘관습적 사고와 수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수용해온 사회 내 관습과 가치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는 가치판단을 내리는 집단과 권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된다.

다음으로 ‘관행적 정치행태’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태에 주목하여 관행적인 정치인의 행태와 권력 유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진영논리에 대해 꼬집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환경에 대응하는 대중의 모습을 ‘양식화된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 설명한다. 양식화된 방식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회의감을 표현하며 역사와 정치에 관성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다.

위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여러 이미지를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편집된 이미지는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나열하거나 겹쳐 놓는 것을 통해 맥락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된 의미는 각 작업 내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주로 ‘병치’와 ‘중첩’을 사용하였다. ‘병치’는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와 텍스트의 병치를 통해 내용의 재맥락화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비교평가를 유도한다. ‘중첩’을 통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은 역으로 삭제되고 남은 이미지와 그 흔적의 대비를 통해 내용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현방식의 특징을 사용하는 동시에 형식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자 본인의 작업 성향에 알맞은 기법으로 인쇄 및 실크스크린 기법을 설명하고, 개별 작업에서 차용된 형식들이 판재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기존 작업들의 소재와 주제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작업에 임하고 기법과 판재의 사용에 있어서 편의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엄밀하게 주제와 형식을 탐

색하고 다듬어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한국 사회상의 관찰, 비판적 현실 인식, 관행적 정치, 대중의 정치참여, 병치와 중첩
학 번 : 2015-20015

목 차

Ⅰ. 서론 ····· 1

Ⅱ. 비판적 현실 인식과 미술 ····· 3

Ⅲ. 한국 사회상의 관찰 ····· 7
1. 관습적 사고와 수용 ····· 7
2. 관행적 정치행태 ····· 14
3. 양식화된 대중의 정치참여 ····· 21

Ⅳ. 비판적 인식의 시각화 ····· 28
1. 이미지 수집 ····· 28
2. 이미지의 편집과 재생산 ····· 30
1) 병치를 통한 재구성 ····· 30
2) 중첩을 통한 강조 ····· 34
3. 형식과 기법의 활용 ····· 40

Ⅴ. 결론 ····· 45
참고문헌 ····· 47
Abstract ····· 49

도 판 목 록

[참고 그림 1] ‘채집하기’, 40x40cm(28EA), 종이에 수채, 2013 ·· 8
[참고 그림 2] ‘채집하기’ 세부 ····· 8
[참고 그림 3] 검색어 “집회” 스크린 캡처 이미지. 20171024 ···· 29

[그림 1] 낱말카드, 18x12cm(3EA), digital print, 2013 ····· 9
[그림 2] 한글 놀이 벽보, 29x42cm, 종이에 인쇄, 2013 ····· 11
[그림 3] 태극기 그리기(가), 70x50cm(5EA),
드로잉에 실크스크린, 2018 ····· 13
[그림 4] 태극기 그리기(가), 부분 ····· 13
[그림 5] 위하여 Ⅰ, 30x20cm, 목판화, 2014. ····· 14
[그림 6] 위하여 Ⅱ “신뢰, 믿음” “확실, 일꾼” “함께, 복지”,
40x30cm(3EA), 지판화, 2014 ····· 16
[그림 7] 위하여 Ⅲ-1, 40x12cm(2EA),
종이에 인쇄, 2015 ····· 19
[그림 8]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29.7x42cm,
종이에 인쇄, 2015 ····· 20
[그림 9] 한 목소리가 되어, 91x54cm(4EA),
갱지에 인쇄, 2015 ····· 22
[그림 10] 이유, 약 6x4m, 현수막 천에 실크스크린, 2018 ····· 23
[그림 11] 201X년의 풍속도 “소통해요”, 40x40cm(12EA),
종이에 인쇄, 2018. ····· 25
[그림 12] 기념사진 ‘독립기념관 앞에서’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145.5x97cm, 판넬에 실크스크린, 2018 ····· 27

[그림 13] 한 반도의 한 목소리, 25x18cm(4EA),
판화지에 인쇄, 2015 ····· 32
[그림 14] 위하여 Ⅲ-2, 50x12cm(2EA),
종이에 인쇄, 2015 ····· 33
[그림 15] 태극기 그리기(가) 세부 ····· 34
[그림 16] 한 목소리가 되어(습작), 91x54cm,
갱지에 인쇄, 2015 ····· 35
[그림 17] 플래카드 세부 ····· 36
[그림 18] 플래카드, 2.4x4m, 현수막 천에 실크스크린, 2017 ····· 37
[그림 19] 기념사진 중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세부 ····· 38
[그림 20] 201X의 풍속도 “소통해요” 세부 ····· 39
[그림 21] 위하여 Ⅱ 중 “함께, 복지” ····· 40
[그림 22] 사용 불가 포장지(가), 모조지에 인쇄,
설치 전경, 2015 ····· 42
[그림 23] 2017년의 풍속도, MDF 커팅 및 자석,
가변 설치, 2017 ····· 43
[그림 24] 2017년의 풍속도 세부 ····· 43
[그림 25] 기념사진 중 “독립기념관 앞에서” 세부 ····· 44

Ⅰ. 서론

나는 사회의 여러 양상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의문과 못마땅함,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작품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주로 주목하는 대상은 특히 사회적 규범, 정치, 대중에 관한 대상에 주목하며, 이것을 소재로 사용한다. 터놓고 각자의 관점을 나누는 것은 사회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드러내놓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나누기 힘든 분위기이며, 가까운 가족은 물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말을 아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작업으로 가져와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말과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방식이다. 또한 작업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한국 사회상에 대해 표현을 함으로써 다른 관점과 성향을 지닌 관객에게도 불편함 없이 나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단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여러 작업은 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한 작은 의문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현실에 대한 나의 비판적 인식을 기초로 한다. 작품 연구에 앞서 Ⅱ장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 계기와 그를 통해 고찰한 미술의 역할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관습적,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드러나는 사회상에 대한 반응과 관찰을 토대로 이러한 패턴의 형식 자체를 차용하고 유형화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각각의 작품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개별 주제에 관련된 배경과 소재를 분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와 대중으로 시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짚어볼 것이다. 개별 작업은 제작에 있어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소재 간 공통적 요소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는 큰 맥락에서 내가 관찰한 사회상으로 묶인다.

이어 Ⅳ장에서는 이미지의 수집부터 작업의 조형적, 형식적 특징에 이르는 시각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Ⅲ장을 통해 분류한 작업이 각각의 특징을 통해 잘 표현되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가장 먼저 작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이미지 선택 과정과 재생산 과정을 정리하며 작업 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시도에 대해 다룬다.

다음으로 편집된 이미지를 다루는 구성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병치'가 주제를 드러냄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비판적 인식과 이로 인한 회의적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중첩'의 조형 방식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현방식의 특징을 사용하는 동시에 형식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여러 가지 판화기법 중 인쇄 및 실크스크린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사안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해 내는 작업 성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법의 특징적 요소를 활용한 부분을 분석하며, 이어 판재의 선택 과정을 논함으로써 개별 작업에서 어떠한 형식이 차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원 진학 전의 작품과 재학 기간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작업 내 소재를 통해 변화하는 작가 본인의 시선과 관점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다양한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의 관점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작품이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동시대 관객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고 나아가 관객들에게 비판적 현실 인식에 대한 재고를 제안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비판적 현실 인식과 미술

나는 대학교 재학 중 미술대학 학생회장을 맡아 학내에서 일어난 국립대 법인화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학생 사회 내 정치활동을 직접 하고 현실 정치의 축소판을 목격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동안 집단 내 개인으로서 사회와 정치 상황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수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동시에 시위 참여 중 미술대학 학생들과 함께 직접 그렸던 패러디 걸개그림과 일명 '본부스탁'이라는 공연이 시위 내외부에서 호평을 받는 것을 보며 예술을 통한 발언이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였다. 위의 경험은 내가 인식한 현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창구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예술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예술을 통한 발언으로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었다.

매튜 키이란(Matthew Kieran)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서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의 자연적인 관심사임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예술이 예술적 관습을 이용해서 세계를 보는 특정한 시각을 규정하거나 그런 시각의 전파를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1] 예술가는 내면의 탐구는 물론 외부를 향한 시각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관객들은 그러한 작품을 접함으로써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과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내가 바라본 사회의 모습을 화면으로 가져와 표현함으로써 동시대의 관객에게 나의 시선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작품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현실에 대한 재고를 이끄는 매개가 된다.

1) 매튜 키이란. 이해완 옮김. 『예술과 그 가치』, 북코리아, 2010. 134쪽.

다시 말해 예술가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예술이라는 언어로 관습과 정치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관객에게 논의 거리를 제공하며, 예술작품은 의미를 제시하는 작가와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 사이에 소통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2)]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주도로 2006년에 열린 아트 디베이트에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공유되었다. 그중 예술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정치의 한 형태로서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므로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또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3)]와 같이 작업을 통해 현 사회현상과 세태를 드러내는 것은 예술가로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나는 정치와 사회의 면면을 소재로 화면에 가져옴으로써 현실 정치에 관한 관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관점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작품의 작용은 자신의 존재에 의해 이를 불러일으키는 상기(想起)이다. 예술은 실천의 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할 필요는 없다.[4)] 그저 주제에 관한 생각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목표로 삼는 작품도 있고, 그런 주제를 지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들로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작품도 있다. 예술의 목표가 항상 어떤 것의 진실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는 데로 향해 있지는 않다.[5)] 이러한 태도는 소극적인 자세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이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 그 지각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구조를 변혁하는 동기로서 사회 참여적 가치를 가진다[6)]면 내 작품 또한 참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조광석, 「관객 참여 미술과 미술의 사회적 기능 연구 –요셉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6(5), 2015. 633쪽.
3) 양혜원, 김현경, and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양혜원, 김현경 외 [연구책임], 2019. 93쪽
4) 김문환, 『비판이론의 예술 이해』, 이학사, 2016. 91쪽.
5) 매튜 키이란, 앞의 책, 139쪽.
6) 양혜원, 김현경, and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의 책, 22쪽.

위와 같은 예술의 기능에 관한 생각의 정립은 예술로의 발언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실에 대한 재고를 제시하는 목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나는 비판적으로 인식한 현실의 모습을 익숙한 형태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화면으로 들여온다.

앞서 예술이라는 언어로 사회에 대한 나의 관점을 시각화하는 것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 내가 인식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위 참여 경험은 나에게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사회 내 여러 모습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현실 사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체계와 권력이 존재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가진 의견과 관점이 사회 내에서 학습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주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현실 인식은 오랜 관습과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현재, 오롯이 나만의 관점을 갖고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다.

나는 여러 사회의 면면 중에서도 특히 정치와 사회의 반복적인 양상을 소재로 들여왔으나 단순히 작품 내에 정치 및 사회와 관련된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사회 참여적 예술이라 할 수 없다. 작가로서 현 사회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태도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장면에서 특정 장면을 선택하고, 이를 화면으로 가져와 재구성한 결과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 양상들을 보여줌으로써 동시대의 관객에게 현실 비판적 인식의 재고를 제안하는 역할로 사회에 기능하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나의 작업은 리얼리즘 미술의 작가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파악하고 인식한 사실성의 표출[7]이라는 정의에 뿌리를 두며, 비판적으로 바라본 현 사회의 단면을 재구성하되 소재가 가진 사실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시 객관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작업의 소재와 주제는 나의 주변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정치, 대중에 관하여 다루며, 개인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기반하되 한국 사회 내의 구성원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가져온다. 개인의 경험은 내가 살아가는 현 사회와 동떨어져 발생할 수 없기에 개인을 통해 집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집단의 모습에서 개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의 순환으로 인해 비판적 현실 인식은 나 자신을 향한 비판적 시선으로 전환된다.

나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 내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집단에서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모든 사회에는 각자의 이익 관계에 따라 쉽게 합치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 틈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에 대한 의문 제기 자체는 비판적 현실 인식의 한 부분이며, 비판적 현실 인식은 사회 내의 개인으로서 객관적 관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은 미술 작품으로써 나의 비판적 현실 인식과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관객에게 현실에 대한 재고의 여지와 관점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7) 김재원, 「'리얼리즘'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2011. 85쪽.

Ⅲ. 한국 사회상의 관찰

1. 관습적 사고와 수용

동일 문화[8]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나 언어, 풍습, 규범 등을 공유하고 습득한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기호체계는 모두 문화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의미의 구조체로서 문화체계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이어서 한번 주입되면 집단 무의식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9]이기에, 한국 사회와 문화권에서 성장한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가치관에 기반하여 현실을 인식해왔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 있다.

<채집하기>(참고 그림 1)은 2013년 대학 졸업 작품으로, 길거리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특정 술집의 외관을 채집하듯이 그려 모은 것이다. 당시 이 작업은 깊은 주제 의식을 담지 못하고 외면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특징에만 집중하여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해당 공간에 시각적으로 이끌리는 동시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찾고자 하였고, 이것이 사회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어지는 작업을 통해 사회 내 관습적 사고는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은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8) 문화를 최초로 정의한 사람은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 1832-1917)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원시문화』(1871)에서 문화를 "지식 · 신앙 · 예술 · 법률 · 관습 등 인간이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혹은 습관의 총체"(Tylor, 2010, ch.1)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능력이나 행위습관을 총칭하여 '문화'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길병휘, 「문화코드로서의 도덕 이해와 도덕교육」, 『초등 도덕교육』, 35(35), 2011. 8쪽.
9) 길병휘, 위의 책, 15쪽.

참고 그림 1. ‘채집하기’, 40x40cm(28EA), 종이에 수채, 2013.

참고 그림 2. ‘채집하기’ 세부

그림 1. 낱말카드, 18x12cm(3EA), digital print, 2013

<낱말카드>(그림 1)은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기에 불건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학습용 낱말카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낱말카드는 그림이나 글자를 통해 학습한 뒤 그와 연결되는 단어를 쉽게 익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앞면의 그림에는 어떤 물건이 삭제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 명칭이 적혀 있다. 보는 이는 앞면에 그려진 물건이 삭제되고 남은 동작을 통해 삭제된 물건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다.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동작이 여러 매체를 통해 노출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림에 대한 답을 인식한 순간부터 정해진 답 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가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짜인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작업을 통해 사회 내에서 개인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빗대었다.

<한글 놀이 벽보>(그림 2) 은 앞의 <낱말카드> 작업과 동일한 관점으로 진행한 작업으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유아용 한글 공부 교구의 구성으로 만들었다. 동세를 통해서 연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블러(Blur) 처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영상이나 사진 송출 시 검열 대상이 되는 특정 장면을 없애지 않고 해당 대상만을 블러 처리하기 때문이다. 방송 심의에 관한 기준 제28조[10]의 기준으로 한글 놀이 벽보의 검열 대상 이미지들을 흐리게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단어도 삭제하였다. 단어카드와 마찬가지로 흐려진 이미지와 초성으로도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건전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이라는 문구에서 정작 건전한 시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제작한 사람의 기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어의 삭제 행위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이며 이는 실제 검열 과정에서도 법령을 해석하는 심의 위원회의 주관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연결된다. 어떠한 가치를 받아들일 때 개인이 그 의미와 영향을 판단하기 이전에 외부 그리고 권력 주체에 의해 정해진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10)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절 윤리적 수준 제 28조(건전한 생활 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 정신과 생활 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 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림 2. 한글 놀이 벽보, 29x42cm, 종이에 인쇄, 2013.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위의 작업의 연장선에서 나 자신이 사회 내에서 습득한 기준을 벗어나 사회의 관습적 가치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것이 바로 <태극기 그리기>(그림 3)이다. <태극기 그리기>에서는 무의식중에 수용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관습적 의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였다.

2016년의 촛불집회 이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애국자를 자처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깃발로 흔들며 (여기에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들고 나왔다) 집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는 탄핵 찬성 세력에 의해 '태극기 집회'로 명명된 후 그 명칭이 굳었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은 '태극기 부대'로 불렸다. 후에 '태극기 부대'는 극우집단과 나아가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를 조롱하는 단어로 전락하게 되었다.

나는 태극기의 의의를 전유하고, 태극기 하면 극우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태극기 부대'를 보며 불편한 감정이 들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태극기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태극기 그리기>를 통해 이러한 막연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태극기 드로잉 위에 태극기 규격에 따른 실제 비율로 선을 본떠 실크스크린 판화를 중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드로잉에 태극 문양과 4괘가 포함되기에 그 요소만으로도 태극기를 표현한 것을 알아챌 수 있으나 실제 규격 선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여백은 개인의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드로잉 아래에는 태극기와 짝지어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하여 관객에게 하여금 각자 태극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드로잉은 태극기와 각각의 단어에 대한 모호한 인식을, 규격화 선으로 표현된 태극기는 관습적 의의와 연결된다. 정치적 의도와 쓰임에 상관없이 관객 각자가 태극기와 관련된 사건, 대상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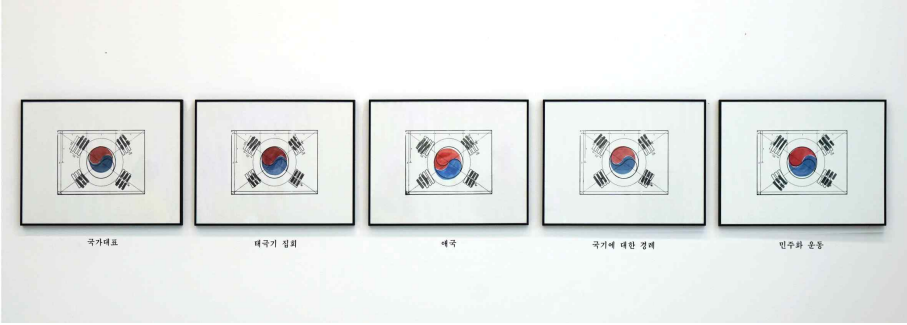


그림 3. 태극기 그리기(가), 70x50cm(5EA), 드로잉에 실크스크린, 2018.

그림 4. 태극기 그리기(가) 부분

2. 관행적 정치행태

앞서 우리 사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규범과 가치들에 의심 없나 비판 없이 수용해온 모습에 대해 말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사회 내 가치를 규정하는 집단과 권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로, 자연스레 나의 관심은 정치로 옮겨가게 되었다.

먼저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태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적대적으로 싸우고, 본인 진영의 문제점을 고치기 이전에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우스운 점이 있다면, 매 선거철 뿌려지는 선거공보물에는 어느 진영과 상관없이 비슷한 사진과 문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노출하며 그마저도 언젠가 봤음직 한 짜인 구도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정치판이 새로운 논점과 해결책은 뒤로 한 채 관행적 행태만을 답습한다는 방증으로, 나는 이어지는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였다.

그림 5. 위하여 Ⅰ, 30x20cm, 목판화, 2014.

<위하여 Ⅰ>(그림 5)과 <위하여 Ⅱ>(그림 6)는 정치인들의 관행적 행태를 포착하여 작업으로 가져온 것이다. <위하여 Ⅰ>는 정치계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정당 배경과 상관없이 서로 한 이슈에 대해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는 자세다. 방송과 뉴스 기사의 정치면에서 자주 보이는 구도를 잘라내어 목판화로 제작하였다. 제목의 '위하여'는 중의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선택인 양 행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어 <위하여 Ⅱ>는 국회의원 선거 시에 거리에 떨어진 홍보 명함을 보고 착안한 작업이다.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는 거물 인사를 제외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가 누구인지, 무슨 업무를 맡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 감히 예상한다. 국회의원 선거 시기 즈음 거리 바닥에 떨어져 있던 후보자 명함들을 수집하고 명함 내에서 유사점들을 뽑아내어 지판화로 옮겼다. 몸을 살짝 옆으로 틀고,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 단정한 머리 모양, 신뢰감을 주기 위한 옅은 미소와 유권자의 마음을 끌기 위한 단어 등 반복되는 이미지를 골라내어 화면으로 옮겨 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다수 정치인의 행태를 겨냥한다.

그림 6. 위하여 Ⅱ "신뢰, 믿음" "확실, 일관" "함께, 복지",
40x30cm(3EA), 지판화, 2014.

정치인들의 이러한 관행적인 정치행태는 각 정당 간의 진영논리와 싸움은 권력 유지와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할 뿐, 어느 쪽이든 별다른 점 없이 똑같다는 관점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진영논리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영을 절대적 선으로, 자신의 입장을 반대하는 진영을 절대적 악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 논리로 둔갑한다. 부정적 의미에서 진영논리는 일종의 '선악 게임'의 양상을 드러내면서 '진리 독점'을 꾀하며, 상대방을 '적과 동지'의 관계로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11] 이러한 의미를 <위하여 Ⅲ-1>(그림 7)에서 단적으로 드러낸다. 양 정당의 정치인들이 모여 각자 국회의사당에서 피켓을 들고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을 부분수정하고 나란히 배치하였다. 같은 장소와 같은 구도, 그리고 그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세마저도 똑같음을 알 수 있다. 각 정당의 동일한 주장은 당색으로 소거하여서 한자리에 모인 그들이 같은 뜻으로 모여있음을 드러낸다. 어떠한 사안과 문제에 대해 접근하더라도 각자의 진영논리에 기반한 피켓 문구는 정당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극과 극의 색의 차이를 통해 그들 사이에 타협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선은 정당 간의 행태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적용된다. 외교적, 국제적 상황을 떠나 남북한 관계 또한 정치인들과 지도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관행적으로 만들어진 진영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다음의 작품에 드러나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그림 8)은 초등학생 때 매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그리던 통일 포스터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통일 포스터를 통해 말하는 것은 항상 전쟁의 종식과 하나가 되는 한반도이다. 으레 우리는 모두가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말한다. 성인이 된 후 바라보는 남북한 관계는 포스터 그리기를 통해 염원하던 모습과 매우 다르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말하지만, 실상 남북한의 진영 구도에 이

11) 채진원, 「진영논리의 극복과 중도정치에 대한 탐색적 논의」, 『민주주의와 인권』, 4(1), 2014. 315쪽.

용당하고 있음을 비판적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위하여’와 같이 중의적, 반어적 뜻을 내포한다. 남북한 정치 진영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아직까지는’ 통일을 미루자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고, 휴전 국가로서 현재는 전쟁의 위협에서 ‘괜찮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도록 의도함으로써 이를 보는 관객에게 하여금 ‘괜찮은’ 주체가 무엇인지 대해 의문을 느끼기를 바랐다.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식의 진영논리로 나뉜 좌와 우, 진보와 보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념상의 허구’ 즉, 편향성을 가진 ‘기울어지고 왜곡된 의식’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틀린 판단’이다.[12] 작가로서 나는 관행적 정치행태에 대한 비판적 재고의 메시지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각 정치 세력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중도적 입장을 갖고자 한다.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대안과 중도를 위한 행동이자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을 표현했다.

12) 채진원, 위의 책, 331쪽.

그림 7. 위하여 Ⅲ-1, 40x25cm(2EA), 종이에 인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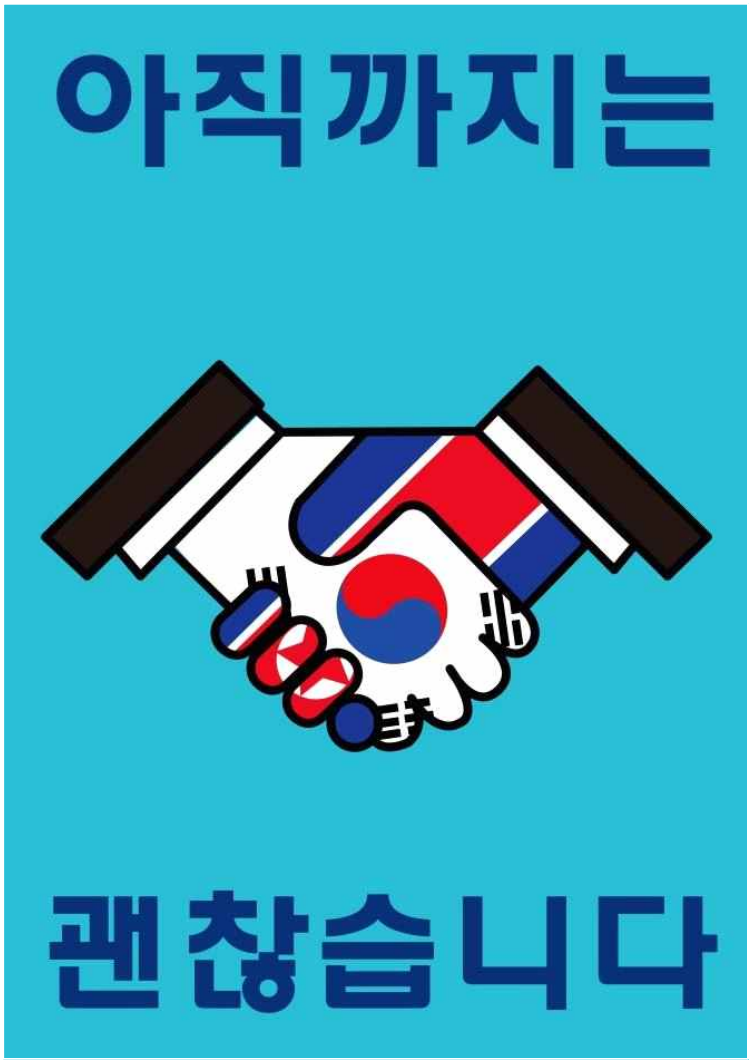


그림 8.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29.7x42cm, 종이에 인쇄, 2015.

3. 양식화된 대중의 정치참여

앞서 나 자신이 개인으로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양상에 대해 논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그에 반응하는 대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중들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그에 따른 반응도 매우 빠르며 사회문제에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소수가 뜻을 모아 다수가 된 그 힘은 엄청나며, 역사 속에서도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항일운동은 물론, 민주화 운동, 가깝게는 촛불집회가 그러하다. 하지만 빠르게 뜨거워지는 만큼 빠르게 식는 관심, '냄비근성'으로 불리는 단점을 가졌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역사와 정치 사안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속한 집단이 취사선택한 요구안이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모습은 수동적이라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생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이 터져 나오는 사건에 눈을 돌리는 순간 쉬이 잊힌다.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대중의 성향은 현 정치판에 이용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나는 대중의 정치참여 양상을 시각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회의적 감정과 비판적 시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작업의 주제가 자리 잡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시위 참여 경험이었기에, 일련의 작업은 시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한목소리가 되어>(그림 9)은 각기 다른 시위 현장의 보도자료 이미지를 수집한 후 디지털 수정을 가한 작업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 올리고 있는 피켓의 문구는 사진마다 통일된 색으로 지움으로써 해당 시위가 어떤 목적의 시위인지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집단행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피켓의 문구가 지워지고 남은 색면으로 시위 현장을 마치 거대한 매스게임처럼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매스게임 속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한 부속으로서의 개인에 빗대어 피켓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 또한 특정 집단이나 정치 세력의 주장에 부지불식간 편입될 수 있음을 은유하고자 하였다.

그림 9. 한 목소리가 되어, 91x54cm(4EA), 갱지에 인쇄, 2015.

그림 10. 이유, 약 6x4m, 현수막 천에 실크스크린, 2018.

앞의 (그림 9)에서 피켓 문구를 지워냈다면, (그림 10)에서는 오히려 피켓 문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몇 단어를 추려내어 그 단어 자체를 실크스크린 판화로 표현했다. <이유>(그림 10)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위를 통해 대중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권리', '행복', '평등' 4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실크스크린 판으로 제작한 뒤 가로 6m 세로 4m 크기의 플래카드 위에 반복적으로 찍어내었다. 나는 이 작업 통해 시위 현장에 대한 인상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대한 플래카드의 크기를 통해 대중의 정치참여 규모를 비유하고자 하였다. 천 위에 반복적으로 찍히는 과정에서 단어들이 중첩되어 지워지는 것은 시위 내 제기된 문제와 요구사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심을 잃거나 종국에는 모호해짐을 나타낸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시위가 정치에 참여하는 주된 방식으로써 여전히 대중의 강력한 힘을 직접적이고 시각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시에 나는 이를 통해 시위 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01X년의 풍속도 “소통해요”>(그림 11)와 <기념사진>(그림 12)은 2016년 촛불집회,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 선거투표 후에 범람하던 인증 사진을 보고 착안한 작업이다. 먼저 (그림 11)은 소셜미디어 내 공유된 사진에 해시태그를 병합한 이미지로, 일상 사진들 사이에 정치 이슈와 관련된 이미지를 섞어 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미닝 아웃’[13]의 형태로 온라인상에 자신의 취향과 정치 성향에 이르는 다양한 자기표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미닝아웃이 소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해시태그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발적으로 정치 사회적 신념을 표출하게 된 것이 미닝아웃 트렌드의 핵심이다.[14] 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는 ‘이용이 곧 참여가 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치 행위를 독려하고 정치 행위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정치참여의 수단이자 정치참여의 공간 그 자체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15] 소셜미디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디어로 평가받으나,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대해 회의적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여러 분석과 전망이 존재하는 가운데, 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평가보다 이를 사용하는 대중에 대해 시선을 돌렸다.

---

13) 미닝 아웃(meaning out)은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념(meaning)과 벽장 속을 나오다(coming out)의 합성어다. 오수연, 「미닝아웃 바람」. 『마케팅』, 53(11), 2019. 55쪽.

14) 오수연, 앞의 책, 55쪽

15) 문원기,이수범, 「소셜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4), 2015. 156~157쪽.

그림 11. 201X년의 풍속도 “소통해요”, 40x40cm(12EA), 종이에 인쇄, 2018.

그리고 이미지마다 공통으로 해시태그(#)와 함께 맞팔, 일상,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검색 노출을 겨냥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정치참여 형태는 지속적인 관심보다는 일시적인 유행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작업 제목 또한 특정 연도를 표기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 무수히 많은 이슈에 대응하는 대중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꼬집기 위함이다. 현 세태에서 대중들이 관성적인 단발적 참여를 벗어나 지속적 관심과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표현이며, 이는 비단 대중만을 향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기도 하다.

<기념사진>(그림 12) 시리즈는 근현대 역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찍는 단체 사진을 소재로 가져온 작업이다. 기념사진의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기 위하여 찍는 사진'[16]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두 기념관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치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역사교육에 주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그 교육의 목적이 무색하게도 현시대의 대중과 해당 공간은 서로 피상적으로 엮인다. 사람들은 각각의 공간을 다녀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기념사진을 찍고 그 공간을 벗어난 후엔 그 기억과 감정이 결국 잊힌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지점이다. 이렇게 양식화된 기념사진은 (그림 11)과 같이 인증 사진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지 속 지워진 군상은 그곳을 다녀온 수많은 대중의 모습이며 나 또한 그중 한 사람이다. 기념사진의 주인공인 사람들을 삭제함으로써 그 공간과 기념사진을 찍는 행위의 이면을 재고하게 하고자 한다.

16)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1.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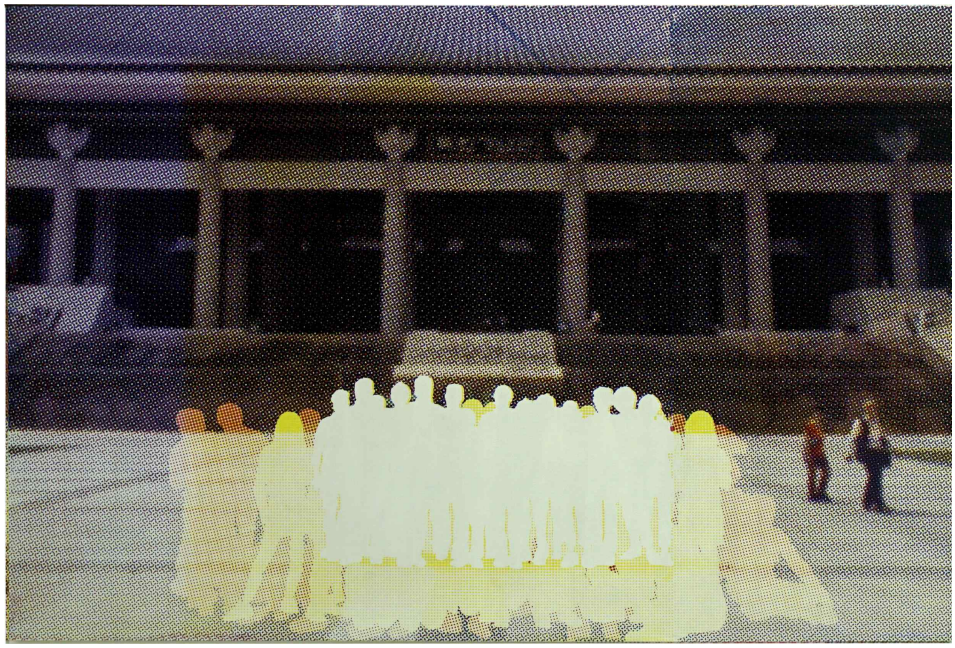


그림 12. 기념사진 '독립기념관 앞에서'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145.5x97cm, 판넬에 실크스크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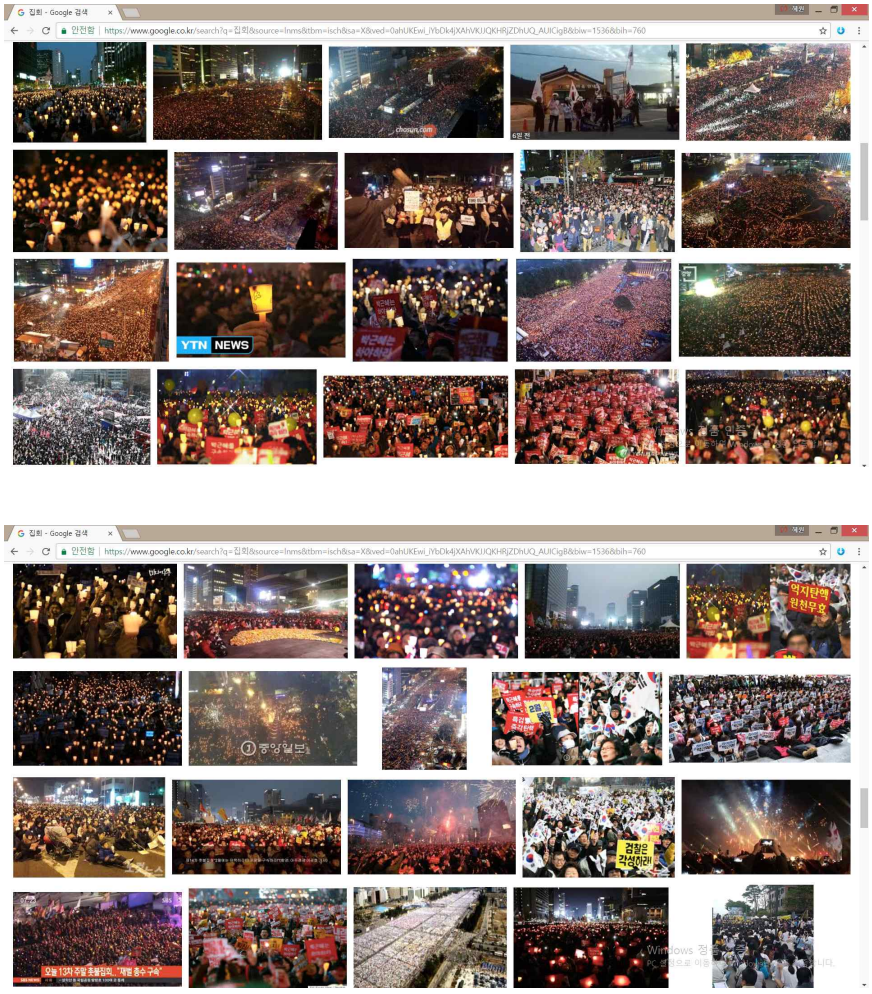
Ⅳ. 비판적 인식의 시각화

1. 이미지 수집

나는 작업에 앞선 이미지 수집 과정으로는 먼저 작업에 관련된 단어를 모으는데, 한 대상을 정확히 명명하는 단어가 주를 이룬다. 모인 단어들을 웹사이트에서 수차례 검색하여 나오는 대량의 이미지 중에 골라낸다. 검색 사이트에서는 보통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 다시 연관 이미지를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연관 이미지로 쏟아져 나오는 대량의 이미지들 사이에서 다시 파생되어 나가는 과정은 마치 신경세포끼리 주고받는 반응처럼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참고 그림 3)은 “집회”라는 단어로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저장한 것이다. 동일 집회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집회”라는 단어로 업로드되어있는 관련 이미지가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이어나가다 보면 종종 다른 결과 이미지를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대체로 크게 해당 결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적당한 이미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지만, 저장된 이미지를 한눈에 볼 때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골라낸 이미지들은 실제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이미지 내부의 요소들로 인해 묶이게 된다. 나는 이렇게 모인 이미지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얻어내고 아이디어를 세분화해 나간다.

초기 작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미지를 수집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미지 내의 요소를 직접 드로잉으로 가져오거나(그림 1, 5, 6), 지워질 것을 염두에 두어(그림 2)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결과물의 해석을 1차원적으로 국한하는 단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다량으로 모은 이미지를 다룰 때는, 먼저 이미지 내의 공통 요소로 묶어 걸러

낸 뒤 걸러낸 이미지들 안에서 다시 차이점을 찾아내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수집 과정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도 활용된다. 이것이 나의 작업에서 이미지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참고 그림 3. 검색어 "집회" 스크린 캡처 이미지. 20171024

2. 이미지의 편집과 재생산

미술품은 이미지와 언어 등을 나열하거나 중첩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가 층위를 이루고 단순한 층위의 구조를 지닌 '단일구조'와 여러 개 층위의 구조를 지닌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일구조'는 단선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텍스트이며, '중층구조'는 이와 달리 단일구조가 두 개 이상 병렬하여 있거나 겹쳐져서 여러 개의 층위로 텍스트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중층구조'란 두 개 이상의 층위들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란히 병렬되어 있거나 겹쳐져 있는 것이다.[17]

나는 작업에서는 수집된 이미지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필요한 만큼 이미지를 편집한다. 편집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재생산이 완료되기도 하지만 편집된 이미지들을 배치하거나 화면으로 가져오는 방식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의 경우 단일 구조에 속한다. 직접 편집한 이미지를 그대로 판화로 찍어냄으로써 재현에 그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대량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여 병렬로 나열하거나, 겹치는 등의 중층구조를 활용한다. 중층구조는 크게 '병렬-몽타주 구조', '겹침 구조', '분산형 구조', '혼합형 구조' 등으로 구분[18]해 볼 수 있는데, 나의 작업은 주로 '병치'와 '중첩(겹침)'을 활용한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의미를 재생산한다. 각각의 작업을 구조적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병치를 통한 재구성

개별 이미지들은 각각 독립된 서사를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한 프레임 안에 나란히 두는 것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각 작업에서 공통

17) 오세권, 「후기구조주의 텍스트 논의로 본 중층구조 표현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3), 2007. 328-329쪽
18) 오세권, 위의 책, 335쪽

으로 두드러지는 '병치'라는 방식이 주제를 드러냄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미지와 이미지의 병치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란히 두고 보는 것은 자연스레 양측을 비교하도록 시선을 유도한다. 각각의 맥락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은 나란히 둠으로써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낸다. <한 반도의 한 목소리>(그림 13)는 남한의 2002년 월드컵 당시 응원 현장을 찍은 사진과 북한의 선전용 매스게임 사진을 나란히 둔 것이다. 당시 사진은 16강 경기에서 이루어진 카드섹션 응원으로, 과거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열세를 이겨내고 8강에 진출했던 북한의 승리를 재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이것을 북한의 매스게임 이미지와 함께 둠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매스게임 내 문구와 표정, 제스처로 인하여 각각의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고 동시적인 상황으로 읽힌다.

남한의 카드 섹션을 보며 '꿈'은 누구의 꿈인지, 1966년의 다시 만들어야 할 신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다. 거대한 매스게임을 이루던 사람 중에 본인이 함께 만드는 그림이나 글자에 대해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어진 것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순응하는 모습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작업은 이미지 병치의 실마리가 된 작업으로, '같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어 <위하여 Ⅲ-2>(그림 14)의 위쪽 이미지는 정치인들의 피켓 시위 모습이고, 아래쪽 이미지는 시민들의 피켓 시위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같으면서도 다름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각각의 피켓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이미지 내에서 보이는 행위는 모두 시위하는 모습이지만, 그 집단마다 자세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치인은 피켓이 보이는 동시에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하여 얼굴을 보이게 들고 있지만, 반대로 시민들은 피켓을 높이 드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림 13. 한 반도의 한 목소리, 25x18cm(4EA), 판화지에 인쇄, 2015.

그림 14. 위하여Ⅲ-2, 25x12cm(2EA), 종이에 인쇄, 2015.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그림 6)의 경우는 정당 간 피켓 시위의 형태와 (그림 14)에서도 보이는 정치인들의 행동 자체는 똑같지만, 피켓의 색을 달리 둠으로써 각각의 정당 간의 진영 차이를 드러낸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병치이다. 텍스트를 그림의 외부 혹은 내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텍스트'는 일차적으로는 단어에 국한되지만, 이 텍스트의 의미나 지칭하는 것은 보는 이에게 경험과 기억을 불러일으켜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어를 통해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그림과 함께 병치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먼저 (그림 8)의 포스터 작업에는 그림 내부에 표어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맞잡은 손의 이미지는 평화를 의미하는 듯이 보이지만, 포스터 내부의 표어로 인해 그 의미는 중의적으로 변한다.

<태극기 그리기>에서는 그려진 태극기 아래 태극기를 보고 연상할 수 있는 단어들을 병치하였다. 각 단어를 보는 관객들은 저마다 떠올리는 이미지나 의미가 다를 것이다. 태극기 그림과 해당 단어를 번갈아 보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하여금 학습된 태극기의 의미들을 연상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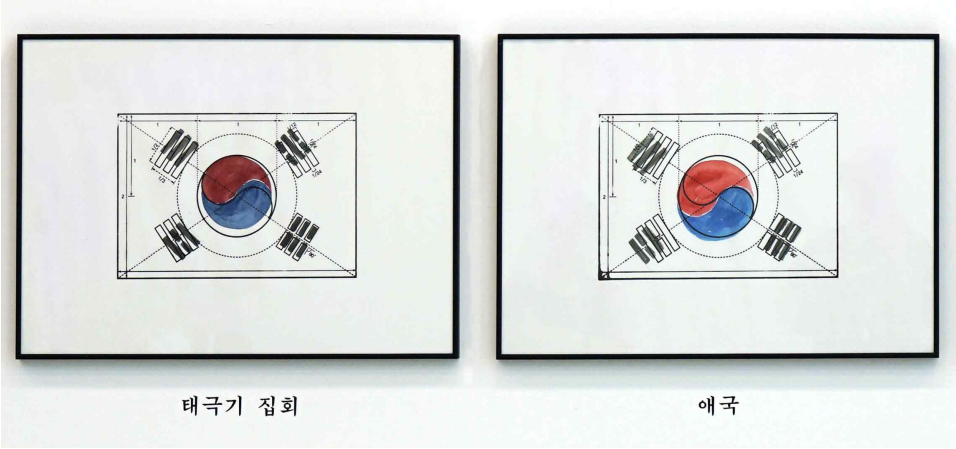


그림 15. 태극기 그리기(가) 세부

2) 중첩을 통한 강조

이미지와 이미지 혹은 이미지 외의 요소를 겹쳐 놓음으로써 원 이미지의 목적과 다른 맥락으로 읽히기도 한다. 특히 '중첩'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반복 양상에 대한 피로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덧씌워지거나 혹은 일정한 요소를 반복하여 중첩하는 것을 '지우기'로, 중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남기는 여백을 '오리기'로 분류하여 각각의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16)은 <한 목소리가 되어>(그림 9)의 초기 작업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부분은 포토샵 프로그램의 픽셀화 기능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은 해당 피켓의 주요색을 추출하여 덮은 것이다. 이 과정은 마치 일일이 붓칠하듯 피켓을 골라내어 색칠하는 것과 같다. 작업의 결과물은 전체 이미지 위로 색으로 덮인 피켓 레이어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워진 피켓은 시위의 집단행동과 지워지고 남은 부분의 시위 참여자의 모습을 강조하게 된다. 피켓의 문구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그를 지워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것은 피켓에 집중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에 임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자주 오랫동안 해당 시위 이미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그림 16)에서는 피켓 색이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데, 이후 제작한 (그림 9)에서는 통일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16. 한 목소리가 되어(습작), 91x54cm, 갱지에 인쇄, 2015.

이어 피켓 시위를 바라보는 거리감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 작업이다. <플래카드> (그림 17)은 <이유>(그림 9)의 제작에 앞서 제작한 것으로 현수막 천위에 찍힌 단어는 '권리'이다.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거나 플래카드나 깃발을 걸고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라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다양한 논쟁거리를 모두 권리라는 한 단어로 일축하여 판을 제작하였고, 많은 시위와 요구사항들을 표현하는 행위를 넓은 플래카드 위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으로 빗대어 드러내었다. 초반에 읽을 수 있었던 단어들은 중첩되어 쌓여나가다 병합되고 하나의 레이어가 된다. 결과적으로 플래카드는 단어가 지워지고 남은 무늬로 가득 찬 커다란 화면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는 작가로서 느끼는 시위 현장에 대한 인상이자 요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찍어나가는 과정에서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시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며 시위 자체의 본의가

퇴색되고 행위만 남는 경우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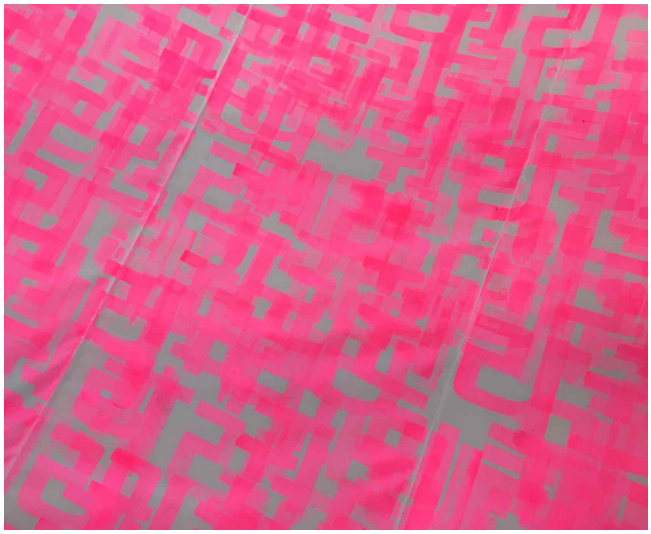


그림 17. 플래카드 세부.

그림 18. 플래카드, 2.4x4m, 현수막 천에 실크스크린, 2017.

다음으로 중첩되고 남은 여백을 오려낸 흔적으로 보는 '오리기'이다. 각각 편집된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혹은 각 이미지에 관련된 텍스트를 한 층으로 만들어 중첩한다. 중첩 후 바탕인 판재의 배경색이 드러난 부

분이 오려져 삭제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려낸 뒤 남은 이미지가 강조되는 동시에, 오린 흔적에도 시선이 가게 된다.

<기념사진> 시리즈에서는 같은 공간을 다녀온 각각 다른 네 단체의 기념사진에서 사람들을 오려내어 네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내고, 이를 중첩한 것이다. 오려지고 남은 부분은 중첩되어 각 장소의 이미지를 이루지만, 오려진 군상들은 흔적만 남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려내고 남은 이미지에서는 그 장소가 강조되는 동시에 층위별 여백이 강조된다. 이렇게 잘려 나간 사람들의 형태는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 그 순간만을 드러낸다.

그림 19. 기념사진 중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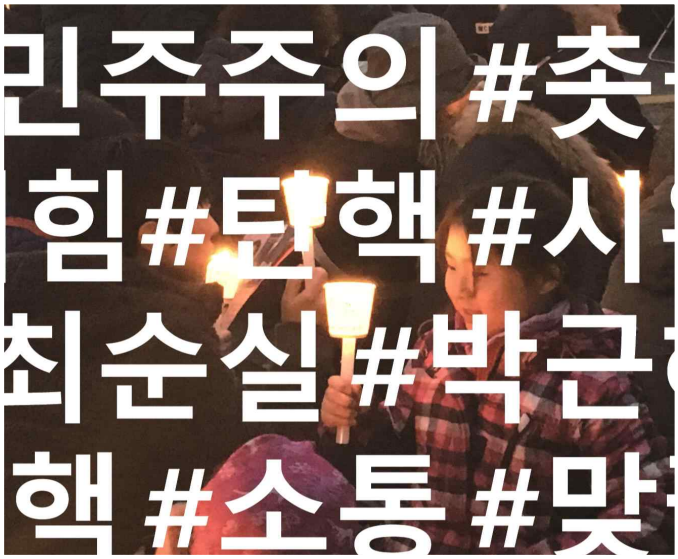


그림 20. 201X의 풍속도 "소통해요" 세부

나는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중첩함으로써 이미지에 편집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한 (그림 10)에서는 각각의 이미지에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및 연관 단어로 이루어진 레이어를 겹쳤다. 그 레이어는 배경의 바탕색과 똑같기에 마치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오려낸 것처럼 보인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읽는 동시에 텍스트로 읽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중첩됨에 따라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미지를 위해 텍스트가 존재하는 것인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지를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의도하였고 배경의 이미지는 특정 사진이 아닌 관련도 있는 이미지 중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그 위를 가로지르며 잘려 나간 텍스트를 통해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이미지들은 보는 이의 인식 속에 펼쳐지게 된다. 편집된 여러 이미지를 나열함으로써 현 세태의 광경을 드러내고, 텍스트의 흔적을 통해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덧붙이는 현재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 형식과 기법의 활용

형식의 차용은 관객이 실제 현실을 쉽게 연상하고, 그를 통해 제시된 작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직관적이기에 그 층위가 얇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동시에 주제 전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의 작업에는 내부의 구조적 형식을 가져오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만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식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앞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양상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요소를 그대로 화면으로 가져와 직접 그림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했다. <위하여 Ⅰ>와 <위하여 Ⅱ>는 각각 목판화와 지판화로 제작되었다. (그림 21)은 선거용 홍보 명함을 수집하고 명함마다 사용되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지판화로 제작한 것으로,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기호를 나열함으로써 강조를 이룬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실제 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화면에 나의 신체로 직접 가한 흔적이 남아 감정이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1. 위하여 Ⅱ 중 "함께, 복지"

이후 아날로그적으로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 내부의 구조적 형식은 물론 실제를 이루는 물성을 이용하거나 원본 이미지에서 약간의 편집을 가하는 등의 제작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미지 수집에서 적극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한 뒤로는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재 이미지 자체를 변형하여 작업에 사용하였다. 디지털 작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많은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해졌으며 또한 그 이미지의 내부를 직접 수정하기 쉬워졌다. 이러한 방식은 원본 자체가 담고 있는 형식적인 부분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실의 실재 이미지 자체를 편집하는 것이 작가 본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적당하다. 구조와 형식의 활용으로서 디지털 편집된 이미지 자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실제 재질이나 규격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글 놀이 벽보>는 앞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예이다. <201X년의 풍속도>는 이미지와 해시태그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이미지를 게시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작업으로 가져와 사용하였다. 이미지는 정사각형의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의 게시 규격과 상통한다. <기념사진> 시리즈는 각 공간에서 찍힌 기념사진들을 검색하여 수집한 뒤, 편집하였는데, 이미지는 물론 군상의 구도, 그리고 제목을 통해 기념사진의 형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는 달리 단순히 외적인 특징만이 차용된 작업도 존재한다. <플래카드>와 <이유>는 실제 현수막 천과 섬유용 잉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형식을 단순하게 따와서 제작한 것이다.

외적인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판재를 선택할 시, 때로는 실험적인 시도가 되기도 한다. <한 목소리가 되어>의 경우 대량의 보도사진을 수집하여 그것을 수정하고 인쇄한 작업으로, 신문의 재질을 기대하며 갱지에 인쇄해 본 경우이다. 사실 갱지 자체는 그 보존력이 약하고 종이 평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인쇄 작업에는 양질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회색조 바탕과 잉크를 흠뻑 먹는 신문지에 인쇄된 이미지의 느낌을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된다.

편집된 이미지와 그를 담는 외적 형식을 활용하기 이전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사용 불가 포장지(가)>는 당시 <한글놀이 벽보>에 이어 제작한 것으로, 검열되는 이미지들을 직접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포장지 무늬로 만든 것이다. 이를 인쇄한 모조지로 일상의 물건이나 공간을 덮고 드러난 표면에 도리어 검열에 관한 이미지가 전면으로 나오는 역전된 상황을 겨냥하였다. 다음 작업은 <201X의 풍속도 "소통해요">를 제작하기 전 시도한 것으로 단어들의 조합으로만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하에 텍스트를 단위별로 C&C 커팅을 하고 조각끼리 조합이 가능하도록 뒷면에 자석을 붙인 것이다. 관객이 직접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느슨한 연결점과 단순한 아이디어로 진행된 것이기에 목표한 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미지를 담을 외적 형식을 선택할 때 더 고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림 22. 사용 불가 포장지(가), 모조지에 인쇄, 설치 전경, 2015.

그림 23. 2017년의 풍속도, MDF 커팅 및 자석, 가변설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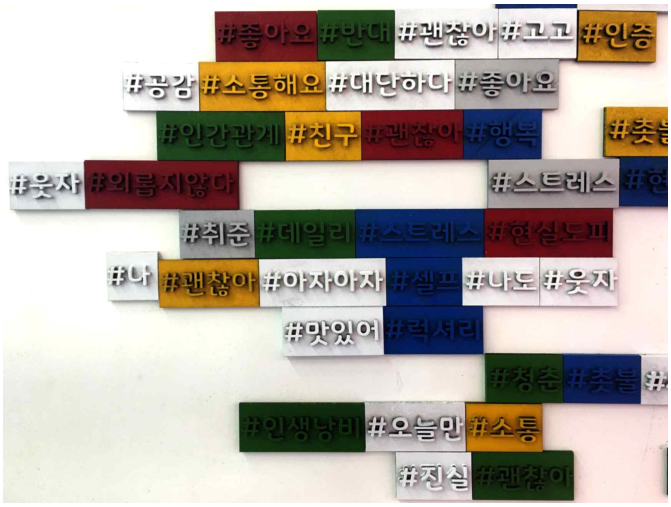


그림 24. 2017년의 풍속도 세부.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수정 과정에서 편집 프로그램 내부의 레이어 작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각 레이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은 마치 제판하는 과정과 같다. 한 레이어 내에서 지우거나 오려 나가는 것은 시간을 들여 이미지에 작가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된 이미지를 작품으로 옮길 때는 인쇄 및 실크스크린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실크스크린 기법은 각 작업 과정에서 단계적 결과물이 빠르게 확인되는 방식이다. 또한 판을 판재 위를 찍는 순간을 제외하는 나머지 제판 과정은 통제할 수 있고 이미지의 확인이 쉽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 수집 단계에서도 각 연관 이미지를 넘나들며 소재를 빠르게 선택하고 전환하는 나의 성향과 잘 맞는다고 보았다. 기법적인 특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작품으로는 <기념사진>을 들 수 있다. CMYK의 4개의 색상 필름을 만드는 분판 과정에서 판마다 군상을 다르게 잘라내고 나머지 공간을 남겨둔다. 결과적으로 판마다 잘려 나간 군상들의 흔적이 층을 이루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입체적으로 해당 장소가 드러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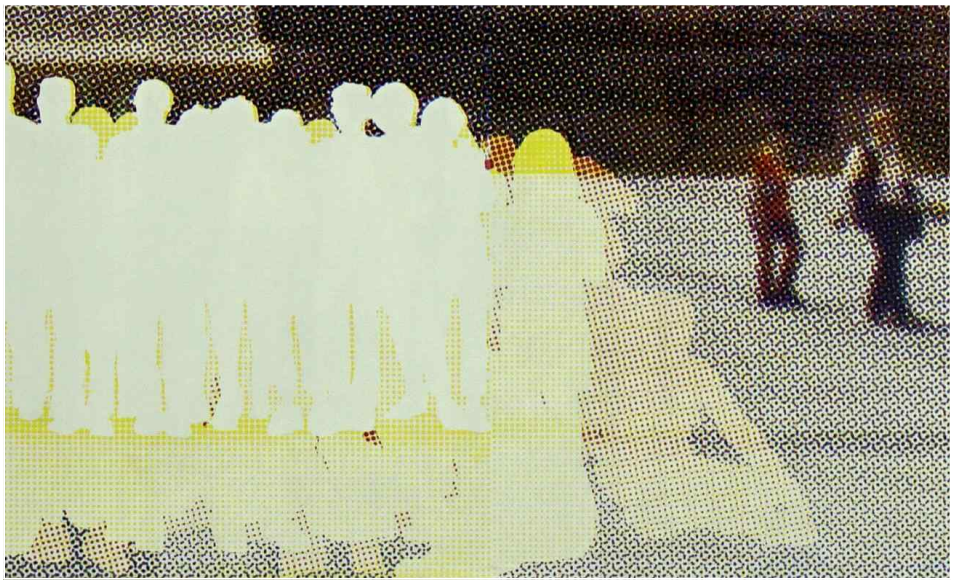


그림 25. 기념사진 중 "독립기념관 앞에서" 세부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현재 내가 바라보는 세태와 정치인, 대중의 행태에 느끼는 감정과 시선이 작품 내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작업들을 크게 정리해 보면, 관습적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낱말카드>, <한글 놀이 벽보>, <태극기 그리기>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 <낱말카드>와 <한글 놀이 벽보>는 소재 자체로 보듯 가치의 교육에 관한 것이며, <태극기 그리기>는 태극기에 관한 관습적 사고에 대한 작업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가치를 주입하고 교육하는 외부의 권력 주체에 대해 관심이 옮겨가게 되고, 한국 정치 환경과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진다. <위하여> 시리즈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는 정치판 내의 관행적 행태를 직접적이며 중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들의 정치참여 방식이 피상적이고 양식화되어있음을 꼬집고자 하였다. <이유>는 이러한 대중의 정치참여가 종국에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모호해짐을, <201X의 풍속도>와 <기념사진>은 찰나의 순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세태에 대판 비판이다.

위의 작업들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이미지를 수집하고, 편집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와 텍스트의 병치 방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각 이미지의 층위를 겹쳐 올려 지워지거나 여백을 강조하는 방법을 취한다. 초반에는 이미지를 직접 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날로그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편집을 진행함으로써 인쇄와 실크스크린 판화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소재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써 다양한 판재를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한국 사회상의 시각화 과정에서 본인의 제한된 관점으로 정치와 대중을 판단하고 제작함으로써, 파생되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점에서 한계점을 느꼈다. 작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단순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작업에 임하고 작업 간의 주제와 관점을 정확히 세우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다. 또한 기법과 판재를 사용함에서도 편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어 향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적당한 방식인지에 대한 점검 또한 면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술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현실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며 작게는 개인의 인식, 크게는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힘을 가졌다. 나의 작품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향한 개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비판적인 재고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작업에서 엄밀하게 주제와 단어를 탐색하고 다듬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Kieran, and 이해완,『예술과 그 가치』, 매튜 키이란 지음; 이해완 옮김, 북코리아, 2010.
김문환, 『비판이론의 예술 이해』, 이학사, 2016.
양혜원, 김현경, and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양혜원, 김현경 외 [연구책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논문

길병휘, 「문화코드로서의 도덕 이해와 도덕교육」, 『초등 도덕교육』, 35(35), 2011. p.5-28
김양호, 「디지털 이미지의 중층성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디지털 디자인학연구』, 12(1), 2012. pp.103-111
김재원, 「 '리얼리즘' 미술」『한국 근현대미술사학』, 0(22), 2011. pp. 71-89
문원기,이수범, 「소셜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 59(4), 2015. p.133-162
오수연, 「미닝아웃 바람」, 『마케팅』, 53(11), 2019. p.55-61
오세권, 「후기구조주의 텍스트 논의로 본 중층구조 표현에 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8(3), 2007. p.325-339
조광석, 「관객 참여 미술과 미술의 사회적 기능 연구-요셉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을 중심으로」『기초조형학연구』, 16(5), 2015. p.641

채진원, 「진영논리의 극복과 중도정치에 대한 탐색적 논의」, 『민주주의와 인권』, 14(1), 2014. p.307-343

참고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ritical Perception through Visualization of Korean Society

Shin Hye Won
Master of Fine Arts in Printmak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er's work view and to provide a foothold for future work by analyzing researcher's works on Korean society with critical point of view. To define the perspectives of researcher's works, the works were classified by each material and the meanings were interpreted. Similarly, the works were examined whether the expression methods were appropriate by describing the expression styles and formal characteristics chosen for revealing researcher's viewpoint. The artist, as a member of society, speaks about customs and politics using a form of language, 'Using

the art as form of language', and provides a discussion point to the audience. A work of art become a communication medium between the artist who presents the meaning and the audience who accepts it.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an art has a role and meaning when it opens the possibility of reconsidering reality to the audience through telling the reality perceived by the artist within the work of art. In addition, criticizing the present society and the current situation by work of art gives the researcher a sense of political efficacy. The researcher responded to the repetitive patterns often seen in Korean society triggered by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and brought them as the subject of her work. In this study, work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each material and the meanings of each work were described. The subject matter was taken around from the researcher and extended to politics, society in general, and the public, and the critical point of view toward the outside results in the researcher's own reflection.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 subject matter into three themes: 'customary thinking and acceptance', 'conventional political behavior', and 'stylize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First, the paper discussed customs and values in the society that have been mindlessly accepted through ''customary thinking and acceptance'. This was developed into doubts about the group and power that make value judgments.

Next, in 'Conventional Political Behavior', the researcher focused on behaviors repeatedly reveal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pointed out the behavior of conventional politicians and the faction logic that is repeatedly practiced to maintain power.

Furthermore,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responding to this political milieu was explained through 'stylize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work expressed the skepticism towards to the public's

uncritical behavior in the stylized participation, and revealed the public's inertial participation in history and politics.

For the expression of those themes, the researcher first collected various images and edited them. The edited images form a meaning through parallelly presenting with other images or texts or overlapping with each other. This reconstructed meaning provides to introduction to further work, and 'juxtaposing' and 'overlapping' methods were applied to build the meaning. The juxtaposition method brings re-contextualization of content by apposing images with other images and images and texts, which leads to comparative evaluation. The overlapping method creates partially blotting out image which emphasizes the content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 deleted image and its traces.

Lastl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in researcher's works. The researcher explained suitability of applying printing and silkscreen techniques for researcher's work, and reviewed the influence of formal characteristics on the selection of the plate material.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had been able to organize the materials and themes of researcher's works and to recognize the problems objectively. The researcher realized that she took a work with a simple and immediate reaction and approached it conveniently in the use of techniques and printmaking.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study on materials and forms and refine them in the future.

keywords : observations of Korean society, critical views of reality, conventional politics,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juxtaposing and overlapping

Student Number : 2015-20015